

권력형 사건 독립기구에 수사 맡겨야

공수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18일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 검찰 출신 김기춘·우병우의 전횡이 드러나고, 진경준 전 감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신설'은 현 정부의 의지를 넘어 국민 모두의 요구가 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사태를 통해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 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1 검찰개혁의 핵심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했다. 탄핵 판결 전까지 8개월간 대한민국을 국정 붕괴로 몰아갔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또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이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제3자 뇌물수수, 공무원비밀누설 등 7개의 죄명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 3면> 결과판 놓고 보면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박영수 특검팀 출범 전까지 검찰은 매우 소극적인 행보로 국민

의 기대를 저버렸다. 검찰은 또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정윤희 문건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행태를 보이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전조는 지난 2014년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11월 한 언론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단독보도하면서 정윤희가 박근혜의 비서출신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시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문건 작성 및 유출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정윤희 문건 수사 못해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 불러 수사권·기소권 분리, 정권과 유착관계 폐해 막아야

박관천 경정을 수사되려 했다. 수사 초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보안 행위로, 문건 내용은 짜리시"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한다.

이후 검찰은 조윤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에 대해 공무원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만약 검찰이 당시 비선 실세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국정농단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2년 뒤인 2016년 들어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과 국정농단 사태 등이 드러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고서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사실상 수용하고, 소극적

으로 일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검사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존재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사 출신인 이들은 인사권을 활용해 주요 사정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자신의 비리를 겨냥한 특별수사팀이 출범하자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수차례 통화했고,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여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하고,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사건은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검찰 개혁의 실무를 총괄 조정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취임 직후부터 "공수처 설치의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이라며 공수처 신설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현표기자 lucky@kwangju.co.kr

"7공수 6월 중순까지 광주 주둔 지휘부 암매장 파악 보고 지시"

5·18 당시 군의관 증언 "7·11공수 6월 행적 조사"를 5·18재단 "3곳 발굴조사"

1980년 5·18 유혈진압에 나섰던 특전사령부 예하 7공수여단 지휘부가 향쟁이 지난 1989년 전남대 5·18연구소(옛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에 증언한 내용으로, 5·18 진압과정에서 공수부대가 도심 외곽지역에서 군 지휘부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을 수시로 자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증언에 나선 7공수 군의관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7공수는 6월 중순까지 광주를 떠나지 않고 주둔하며 뒷수습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 유혈진압 후 서울 임시주둔지(국민대)로 퇴각했다가 6월 초 부라부라 광주로 수습여명의 부대를 내려보낸(광주일보 9월 18일자 1·3면) 11공수부대와 7공수부대의 '1980년 6월 행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軍)은 육군본부 특전사 전 투상보에 '1980년 5월28일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 육군 1항공단 소속 UH-1H 헬기 4대는 무등산을 중심으로 시민군 수색작전에 들어갔다'고만 적고 있다.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1990년 펴낸 '광주 오월민중항쟁 자료집'을 보면, 자신을 광주에 투입됐던 7공수여단 군의관이라고 밝힌 위계룡(1953년생)씨는 연구소 측에 "우리 부대는 향쟁이 끝난 다음 바로 철수한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전교사에서 가져온 작업복을 입고 6월 중순까지 체류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연구소 측에 "순천고 졸업 후 전남대 의대에 다니던 중인데, 광주에 투입됐다. 현재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위씨는 자신의 부대가 향쟁 수습후인 6월에도 광주에 주둔한 이유에 대해 "(지휘부가) 광주가 완전히 진압되었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광주 주둔 기간 무등산 일대

수색작업 등 향쟁 뒤처리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쟁수습 후) 참모회의에서는 뒤에 얻어맞은 부분이 암매장한 장소니까 지금 신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전사령부 참모회의의 인지, 자신이 속한 7공수여단 참모회의 인지 명확하진 않으나 상부회의를 통해 훗날 공수부대의 민간인 학살 내지 암매장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상부에 즉각 신고(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관련 기사 6면>

이는 순천 출신이고 관련 상부 명령에 대해 위씨는 "그러나 그 사고(무등산 수색 도중 병사가 헬기 날개에 다친 사고) 외에 별다른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물론 일선에 있는 대대장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또 사병들이 어떤 명령체계 없이 처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말이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연구소 측에 전했다.

위씨의 증언은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당시 암매장 자진신고 명령은 '5·18 당시 도심 외곽 등지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수시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고, 뒤처리 방법으로 암매장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게 5·18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공수부대 수뇌부가 광주 유혈 진압 이후(5·27일 이후) 부대원들에게 (작전 수행 중) 암매장 관련 내용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점을 뒤집어보면, 5월 18일~27일까지 공수부대원들이 도심 외곽지역에서 공수부대 지휘부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통제 불가의 상태에서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최근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와 군 관계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5·18 희생자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너릿재, 광주교도소 부근, 제2수원지 등 암매장 추정지 3곳에 대한 발굴조사를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형희기자 khh@kwangju.co.kr

김형희기자 kimy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부 605-1115

산자부 민관조사단 구성

한빛원전 4호기

철판 부식 등 원인 규명

산업통상자원부가 "철판 부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결함 발생 원인 규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특별팀(단장 박재호 의원)은 한빛원전 본부를 방문,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한빛 4호기는 그동안 격납 건물 철판 부식을 비롯해 부식 시공으로 인한 콘크리트 빈틈(공극) 발생,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망치 추정) 발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주민 등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20여년간의 부실시공·관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도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 및 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폴리' 설치 완료 18일 언론에 공개된 '광주폴리' 중 '뷰(View)폴리 설치작품 자율건축'은 독일 미디어아트그룹 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의 팀 에들러&안 에들러와 한국 건축가 문훈이 함께 작업한 작품이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관련기사 16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9월 30일(토) ~ 2018년 3월 30일(금)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큐슈, 야마구치)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운항 / 화, 금, 일요일 출발)

출/도착시간 무안(18:20) - 기타큐슈(19:30), 기타큐슈(20:20) - 무안(21:30)

[실속] 북큐슈 549,000원부터

[실속] 야마구치 559,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629,000원부터

북큐슈 온천호텔 559,000원부터

무안 ↔ 기타큐슈 전세기 운항

9. 30(토) ~ 10. 9(월) 추석연휴 매일!!

호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2(월), 10/3(화), 10/6(금)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 ~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7. 11. 17(금) ~ 2018. 5. 18(금)

한일 출발출/도착시간무안(08:05) → 다낭(10:40), 다낭(14:40) → 무안(20:30)

금일 출발출/도착시간무안(21:35) → 다낭(00:10), 다낭(01:05) → 무안(06:55)

[실속] 다낭 · 호이안 · 1일 자유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 · 노음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99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노립 · 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94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 포함사항은 상품에 따라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 제2042003-1호

◆ 공동주최 : 여행정보 1인 기업, 여행정보 기업(해외여행) : 여행,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정보 기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명사,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취소출입원 : 당일에 따라 다름